

# “기억은 곧 투쟁이다”...청년들이 계승한 ‘5·18 정신’

5·18 45주년

‘소년이 왔다’ 광주를 끝나지 않았다

## <6>광주를 읽는 젊은 세대들

### 소설·묘지 참배 ‘오월 광주’ 배워 “추상적 이미지, 살갓에 와 닿아” 왜곡·편향 맞서 진실 전하는 노력

45년이 지난 오월 광주는 여전히 오늘 의 세대와 호흡하고 있다.

광주에서 살아가는 Z세대(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용어) 청년들은 더 이상 5·18을 ‘과거의 역사’로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5·18을 기억하고, 소리 내며 거리로 나선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그 매개 중 하나다. 5·18을 처음 접했던 순간부터, 계엄령 재선포라는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최근까지 젊은 세대는 오월 광주에 대한 기억을 교과서뿐만이 아닌, 소설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어가고 경험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금남로 건물 외벽에 선명한 총탄 자국들이 남아 있는 사진이었는데 교과서에 적힌 설명만으로는 납득되지 않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지난 주말 5·18 항쟁지인 전일빌딩245 1층에서 만난 이서연(18)씨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씨에게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은 기억은 추상적 이미지로만 그려오던 그날의 비참한 상황이 살갓에 와닿는 경험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닌, 지금의 우리를 숨쉬게 만든 저항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는 설

명이다.

그는 “책을 읽고 기억함으로써 저항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항쟁 당시 수많은 10~20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소설 속의 동호, 정대, 은숙이 단순히 ‘등장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 옆을 걷는 친구들처럼 느껴졌다”며 “나 역시 그런 상황이었다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스스로 반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책을 덮은 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책만으로 다 담기지 않는 그날의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수많은 묘비를 보고 그는 “또래의 청소년들, 현재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을 이들의 이름이 묘지를 뒤덮고 있었다. 봉긋한 흙더미 위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슬픔이 얹혀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소설 속 인물 영재는 뭐가 제일 먹고 싶냐는 질문에 울먹이며 ‘카스테라와 환타’를 먹고 싶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을 갈망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겨울,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시도가 44년이 흘러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폭력의 재현이자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부정권의 그림자였지만, 국민들은 이에 맞서며 광주에서 시작된 저항의 맥박이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이수민(16)양은 계엄령이 선포된 날, 학교에서 5·18에 관한 수업을 들었고 이후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1980년 광주의 정신이 시대를 건너 오늘을 지켜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전한다.



이서연(18·왼쪽)씨와 이수민(16·오른쪽)양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 245 1층에서 소설 ‘소년이 온다’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그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충격이 컸다”며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실제로 인식됐다면, 그렇게 늦은 새벽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월문학의 중요성은 계엄령 이후 벌어진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광주의 청소년들은 다시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책장에서 꺼내 읽었고, 거리로 나섰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박혜은(18)씨는 “현재 극우 세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1980년 군부 때와 닮았다. 이 소설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그런 폭력에 동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치유는 잇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

다. 더 깊이 기억하고, 아파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하나의 ‘투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과 함께 금남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가적 과오를 부정하고 반복하려는 이들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비상계엄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다. 1980년 5월 27일 패배를 예감하고도 전남도청에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시민군의 희생을 오늘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빨갱이 폭동’, ‘북한군 개입’ 같은 허위 주장이 온·오프라인에 퍼져 진실을 해치고 있다. 과거 정부가 5·18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존재한

다.

진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기억하는 건 우리 세대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른다. 이 숙제를 일찍이 시작해 풀어가고 있는 청년이 있다. 조선대 재학생 장상원(25)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온라인에서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찾아 제보해 왔다. 그는 현재 ‘왜곡편향대응자문위원회’ 활동을 펼치는 등 ‘5·18 민주화운동 청년해설사’를 병행하고 있다.

장씨는 오늘날 대다수의 청년은 역사를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 없이 ‘사실’과 ‘정서’ 위주로 알고 싶어한다고 전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책보다는 영상과 SNS를 통해 오월광주를 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환경을 경계해야 한다고 장씨는 경고했다. 영상물과 SNS 게시물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을 키우는 설파가 이뤄지고 있는 최근 정세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씨는, 청년 세대가 만들어가는 ‘기억의 방식’에 희망을 본다 말한다.

그는 “영상물이나 SNS 콘텐츠는 빠르고 직관적이라 많은 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사람이 ‘약’을 저지르고 동조하게 되는 원리를 깊이 사유하고 권위·전체·반지성주의를 항상 경계하며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민주항쟁에 대한 진정한 계승”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 청년들에게 있어 5·18을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선 삶의 태도다. 이들은 일상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거리 위의 외침 속에서 오월 영령들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노태우 부인 김옥숙, 5·18묘지 참배 “진심으로 죄송”

###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7년 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9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묘역)과 국립 5·18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다. 김 여사의 5·18 묘역 방문은 1988년 남편 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7년 만이다.

이날 오후 3시께 건강상의 이유로 휠체

어에 몸을 실은 김 여사는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함께 묘역을 찾아 미리 준비해온 꽃을 이한열 열사 묘소에 헌화했다.

김 여사는 “광주 5·18의 영령들께 진심

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과거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굽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메시지를 낭독했다.

묘자는 이어 국립 5·18민주묘지 신묘역으로 이동해 헌화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김범태 민주묘지 소장과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의 안내를 받았다.

노재현 이사장은 “어머니께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은 참배하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셨다. 올해가 마지막 5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시고 오게 됐다”며 “평소 부모님께서 광주 5·18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한번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가족의 뜻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광주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해야”

### 시민단체, ‘유아 줄 세우기’ 지적 학원법상 신고대상 미포함 한계

광주지역 일부 어학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단순한 학습 진단을 넘어 사실상 ‘유아 줄 세우기’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은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조기 영어교육과 입시경쟁을 조장해, 단순한 학습 진단이 아닌 유아를 줄세우는 선별 도구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광주동·서부교육지

원청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7곳이다. 최대 교습비는 한달 124만원으로 파악됐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 언어역량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유아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따로 준비반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부모들은 “영유 테스트 많이 찍세냐요”, “6세 1년차인데, 내년 7세로 들어가면 2년차 테스트 통과 힘드냐요”, “테스트 결과 보고 참담하다”며 레벨테스트에 관련된 글들을 남겼다.

가장 큰 문제는 레벨테스트 운영이 현행 학원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체는 “(레벨테스트가) 법률 상, 신

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그 시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따라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사회적 논란이 된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한 대응이다. 광주교육청은 학원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교습 과정 교습비 게시 △반환기준 게시 △명칭사용 여부 △레벨테스트 여부 △교습비 추가 징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의 경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6월 중에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 광주 고교생, 대학서 진로 찾는다

### 진로 특강 ‘2025 꿈꾸는 공작소 1기’ 지역 9개 대학·35개 진로 체험 강좌 내달 13일까지 희망 고교생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교육청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고교·대학 연계 진로 특강 ‘2025 꿈꾸는 공작소 1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지역 9개 대학에서 총 4주간 16차시에 걸쳐 운영하고, 고등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방문해 전공 수업을 듣고 실습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 대상은 일반고와 특성고 등 참여 대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이다. 참여 대학

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보건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등 총 9곳이다.

학생들은 물리·화학, 인공지능(AI), 발명, 스포츠의학, 이탈리아 요리, 반려동물, 간호 등 35개 전공·학과 프로그램 중 희망 분야를 직접 선택해 참여한다.

광주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산업과 학문이 연결된 실질적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꿈꾸는 공작소’는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실천형 프로그램이다”며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학생 중심의 진로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